

# 5호

# 한문연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인 문재원  
전 화 051-510-1882 팩 스 051-581-5655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051-510-1932

Contents 01 | 인문 02 | 사업 03 | 학술지 04 | 구성원 동정 05 | 신간 소개 06 | 알림

人紋

## “ 글로벌대학에서 다시 생각하는 로컬리티의 인문학 ”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목적으로 비수도권 대학에 5년 동안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글로벌+로컬) 대학’ 2년차 사업에 대학 109곳이 도전장을 냈다. 이들 가운데 70곳은 통합·연합을 전제로 신청해, ‘합쳐야 산다’는 대학들의 전략이 눈에 띈다.” 일간지(한겨레: 2024.3.25.) 기사 내용이다. 우리 대학은 2023년 글로벌 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이 역시 부산교대와 통합을 전제로 한 전략이 주효했다. 100%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연합전선을 주요 수행 전략으로 내세웠다. 기존의 근대학문 패러다임 안에서 견고하게 수성했던 경계의 막들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난 10년간(2007~2017) ‘로컬리티의 인문학(Locality & Humanity) 아젠다로 인문학국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그때 학제간 연구를 하면서 ‘경계 허물기’를 강조했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 기제로 ‘로컬리티’라는 화두를 던지고, 국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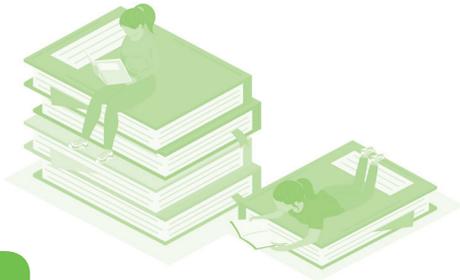
가가 고착시켜 온 위계 구조들을 비판하며 지역의 위기와 상생의 방안을 모색했다. 그때와 지금, 지방대학 연구소와 중앙부처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역-대학의 위기’라는 동일한 표제 앞에서 언뜻 표면적으로는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듯 보인다. 그때 연구단에서는 ‘로컬리티’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주변화되거나 비가시화된 개체들의 다양성과 주름들을 발견하고, 의미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동일성의 맥락으로 환원되지 않는 공통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가 큰 고민이었다.

지금, 학교, 학과의 경계를 허물어 구상하는 거대한 연합대학 전선들에는 이러한 내밀한 고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한 대응, 대안으로 야심차게 맞을 올린 글로벌 대학이라면 경계 허물기 안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경계들이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 📖





6. 서보호, 「근대소설 작가들의 미술 수용 양상 연구-이광수와 한설야를 중심으로-」
7. 최호영, 「디카시(dica-poem)의 문학 공간과 헤테로토피아 미학에 관한 시론(試論)」
8. 고나은, 「한말~일제시기 하천조사와 낙동강 조사사업의 전개」
9. 손미경·고정자,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새로운 시도-오사카 코리아타운 역사자료관 개관을 중심으로-」
10. 이가연, 「1980년대 초중반 낙동강 하구둑 개발 사업과 반대운동-시민사회단체의 건설 반대 논리와 주민들의 보상투쟁을 중심으로-」
11. 이진아, 「1960-1970년대 음악장과 여성 가수, 동남아 순회공연」
12. 양진영, 「엔그램 뷰어로 본 제주 4·3의 해외 인지도 추이-제주 4·3평화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13. 김명주, 「『정감록』 유행과 한글 異本 4종의 서예미 연구」



구성원 동정

임면

연구소

보직명	소속	성명	임명기간	발령일	비고
운영위원 (부산학연구센터장)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문재원	면직	2024.01.30.	면직
운영위원 (부산학연구센터장)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차철욱	2024.01.30.~2026.02.28.	2024.01.30.	신규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소장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차철욱	면직	2024.01.30.	면직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소장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문재원	2024.01.30.~2026.01.29.	2024.01.30.	신규
운영위원 (언어문학연구실장)	부산대 일어일문학과	김임숙	2024.03.01.~2026.02.28.	2024.03.01.	재임명
운영위원 (역사고고연구실장)	부산대 사학과	강정원	2024.03.01.~2026.02.28.	2024.03.01.	재임명
전임 연구원	-	김영미	면직	2024.03.01.	면직

학술지 『한국민족문화』

보직명	소속	성명	임명기간	발령일	비고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	부산대	한종민	면직	2024.01.01.	면직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	부산대	박수정	2024.01.01.~2026.12.31.	2024.01.01.	신규
편집위원	광운대 인제니움학부대학	이승영	2024.01.01.~2026.12.31.	2024.01.01.	재임명
편집위원	부산대 사회학과	신지은	면직	2024.03.01.	면직
편집위원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유영미	2024.03.01.~2026.02.28.	2024.03.01.	신규
편집위원장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조명기	면직	2024.03.01.	면직
편집위원장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차철욱	2024.03.01.~2026.02.28.	2024.03.01.	신규

학술지 『로컬리티 인문학』

보직명	소속	성명	임명기간	발령일	비고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	부산대	한종민	면직	2024.01.01.	면직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	부산대	박수정	2024.01.01.~2026.12.31.	2024.01.01.	신규
편집위원장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문재원	면직	2024.03.01.	면직
편집위원장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조명기	2024.03.01.~2026.02.28.	2024.03.01.	신규

저역서·논문

저서

이름	제목	출판사명	발간일
문재원 (연구책임)	『2023 부산대 다양성 보고서』	부산대출판원	202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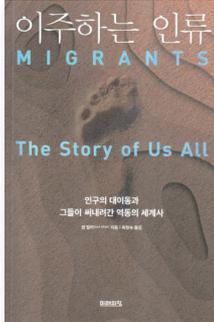
논문

이름	제목	출판사명	발간일
손정아	『상상된 현존, 우키요에에 나타난 정보 모빌리티 - 신문 니시키에와 그림 스고로쿠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100	2024.03.
양순임	『기층한자어 음운현상 연구: 朱熹의 四書集註 출현 한자어를 대상으로』	『우리말연구』 76	2024.01.
이근열	『부산 승학산 지명 연원과 변천 연구』	『항도부산』 47	2024.01.

## 신간 소개

### 이주하는 인류: 인구의 대이동과 그들이 써내려간 역동의 세계사 (MIGRANTS: The Story of Us All)

샘 밀러 | 최정숙 옮김 | 미래의창 | 2023.11.



부산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경험에서 이동과 관련한 스토리가 풍부한 도시이다. 특히 근현대 부산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라 할 만큼 사람, 물자, 정보의 흐름이 중요하다. 최근 이동 혹은 이주를 역사해석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동하는 민족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인류의 역사를 정주민의 시선보다는 이주민들의 시선으로 교체할 것을 강조한다. 인류사는 이주사가 중심이었으며 정주사는 최근의 일이며 그 기간도 매우 짧다는 것이 저자 샘 밀러의 주장이다. 샘 밀러는 이주의 범주를 자유롭게 선택한 이동과 강제적인 것의 양극단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주를 자유로운 이주냐, 강제적인 이주냐에 상관없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적응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로 분류한다. 이주민들은 이주하기 이전의 규범과 가족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자라고 평가했다. 우리가 이주와 이동을 역사연구의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이유는 이주민 사회가 지닌 도전, 독립, 모험 등에서 그들이 구성하는 공간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 인문 건축 기행

유현준 | 을유문화사 | 2023.05.



건축(architecture)의 학문적 분류는 인문학에 가깝다. 건축은 물리적·구체적 구조물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과 논리력, 역사에 대한 통찰력, 사물에 대한 사유의 힘 그리고 이웃의 삶에 대한 애정과 존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20명의 건축가가 설계한 30개(유럽 12개, 북아메리카 11개, 아시아 7개)의 건축물에 대해 인문학적 기행을 시도한다. 저자는 건축을 공부하면서 감명받은 건축물, '새로운 생각'을 보여주는 건축물을 선정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신선하고 놀라운 충격을 준 것들이다. 새로운 생각이 들어간 건축물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르 꼬르뷔지에의 작품은 5개나 된다. "건축은 르 꼬르뷔지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각 건축물에 붙은 부제를 눈여겨볼 만하다. 산업혁명이 바꾼 세상을 보면서 기능적인 건축을 추구한 <빌라 사보아:건축은 기계다>, 내부의 설비들을 모두 외부에 배치시켜 반(反)건축을 선보인 <퐁피두센터: 건축의 본질은 무엇인가?>, 전쟁으로 파괴된 의사당 돔에 새롭게 전망대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한 <독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아랫사람이다> 등은 흥미롭게 다가온다. 또한 <HSBC 빌딩(홍콩): 제약은 새로운 창조의 어머니>의 경우 풍수지리사의 반대에 처하자 혁신적인 구조 기술(사장교 원리)로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생긴 1층 광장은 홍콩 가사도우미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다. 직접 건축물을 보면서 저자가 느꼈던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알림

1. 연구소 학술지 『한국민족문화』는 매년 3회(3·7·11월), 『로컬리티 인문학』은 매년 2회(4·10월) 발간됩니다.
2. 연구소 소장 임명  
- 문재원(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교수)  
발령기간: 2024.01.30.~2026.01.29.